



불교 이레서 좋다

유은경

덕성여대 사회사업학과 4년

존재함에 대한 감사

스무살. 세상은 나에게 벽이 고 고통이고 분노였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나는 한참 망설이고 고민을 했다. 하지만 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함께 했던 송광사의 새벽예불. 동동 울려오는 북소리. 새벽을 여는 법고 소리는 고통스러운 내 존재를 한꺼번에 흔들어 놓았다. 이어지는 예불시간과 기슭을 밝혀주던 '지심귀명례'의 한 구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강렬한 경험을 말하러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 새벽을 이야기하겠다. 그게 내가 불교와 만난 순간이다.

2000년 봄. 나는 한참 늦은 나이에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그때 '대학교 불교학생회'에 가입했고, 신비하고 초월적인 믿음의 문제를 넘어 실제적인 불교를 경험했다. 대불련 불교아카데미 교육은 불교를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믿는 정견의 힘을

길러 주었으며, 전국의 법우들과 함께 했던 여름학교, 여름대회, 통일순례단의 활동들은 나만의 좁은 껍질에서 벗어나 함께 하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소중한 기회를 열어주었다.

지난해 겨울 내게는 육체의 병을 통해 다시 한번 존재의 위기가 찾아왔다. 준비도 하나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죽는 거구나. 불교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고통이고 분노였을 것이다. 그러나 다스리기 힘든 병에 대한 분노는 나를 수행의 길로 향하게 한 스승이 되었다.

수술 후 몸을 회복하자마자 찾은 위빠사나 수행처에서 맞은 생일날 아침, 나는 처음 이 세상에 존재함을 고통이 아닌 감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믿음과 실천과 수행이 함께 하는 삶 속에서 본래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수원 포교당 주최 '제1회 청소년 나혜석 예술제' 개최

1929년 수원포교당에서 첫 전시회 열어
공모전, 예술제, 천도재 등 다양한 행사 마련
매달 2회씩 거리 가꾸기 사업 상설화

한국 최초의 대표적인 여류 서양화가이자 문필가인 나혜석을 추모하는 '제1회 청소년 나혜석 예술제'가 11월 1~2일 수원포교당 주최로 열린다.

수원시가 배출한 대표적 문화인물인 나혜석(1896~1948)은 1929년 첫 번째 작품 전시회를 수원포교당에서 가졌을 정도로 수원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말년에는 또 해인사, 수덕사 견학에 주석하던 비구니 일업 스님을 찾아가 10년 동안 작품 생활을 했다. 나혜석은 유작 '해인사 풍경' (사진) 등 2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청소년 나혜석 예술제에는 서양화 공모전, 나혜석 천도재, 추모예술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양화 공모전은 11월 1일 수원시 장안문 일대에서 열린다. 같은 날 열리는 천도재는 말년에 행려병자로 불행한 생을 마친 나혜석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수원 창동문

(동문) 일대에서 열리는 추모예술제에는 나혜석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연극 공연, 노래 공연 등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원불교학생회는 연중행사로 '나혜석 숨결따라'라는 거리 가꾸기 사업을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2회씩 펼친다. 나혜석과 관련된 매향전반을 청소, 정리 정돈하고 수원성 탐사 및 나혜석 작품 감상 평가회 등 행사가 개최된다.

한편 수원불교학생회와 지체장애인협회 수원지회는 4월 20일 수원불교학생회 창립 37주년을 맞아 장애인들과 학생들이 함께 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연다. 학생회원 70명, 학생회 동문 30명, 청년회원 20명, 운물련 불자 50명과 지체장애인 200명 등은 수원시내 문화 유적지를 돌며 장애인들에게 대한 사회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한국 최초 여류 서양화·문필가

수원포교당 주최 '제1회 청소년 나혜석 예술제' 개최

◇불꽃같은 삶을 살았던 예술인이자 독실한 불자였던 나혜석.

대학 새내기 불교학생회 가입 늘어

포스터 제작, 오리엔테이션 등 알리기 적극 나서

전국 각 대학의 대불련 새내기 가입율이 예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했다.

성균관대의 경우, 개강부터 꾸준한 홍보를 펼쳐 신입생 사이에서 불교 활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학생회는 예년보다 늘어난 20여 명의 신입생을 회원으로 확보했다. 불교학생회는 또 자체적으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오리엔테이션 등 학교 행사를 통해 불교를 알리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북대의 경우에는 20여 명의 새내기가 불교학생회 신입 회원으로 등록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4~5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불교학생회는 26일 텃밭한 스님의 경북대 강연을 불교 홍보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동아대의 경우에는 불교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마음 나누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새내기들의 관심을 꾸준히 모으고 있다. 이미 50명 이상의 신입생들이 불교학생회 회원



사는게 심겁나? 불교학생회

◇사진은 대불련이 올해 대학 포교를 위해 제작한 포스터. 으로 등록을 마친 상태다. 회원들은 맨투맨 방식으로 새내기 불자들을 불교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앙대 불교학생회, 대전대 불교학생회의 새내기 회원 가입도 예년의 2배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 예금주: 조계사 청년회

조계사 청년회 출가 열반절 정진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는 출가 열반절 기간인 10~17일 조계사에서 '초발심은 ☆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수행정진을 했다. 10일 입재식을 가진 조계사 청년회원들은 매일 108배 참회와 참선, 부처님 계승 합송 등을 했다. 청년회원들은 또 이 기간동안 1600여 만원을 모아 간경화 를 앓고 있는 회원 이연옥 씨에게 전달했다. 조계사 청년

명작 비디오 파일

이웃집 토토로

"토토로 토토로..."

최근 인기몰이를 했던 도토리 나무요정 '토토로'가 등장하는 화제작.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가 감독을 맡아 88년에 제작했다. 상영시간은 88분. 상냥하고 의젓한 사츠키와 장난

꾸러기 메이는 사이좋은 자매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자 둘은 아버지와 함께 시골로 이사를 온다. 이때부터 두 자매는 시골집에서 토토로를 알게 되고 신비한 사건을 겪게 된다.

통통한 체구에 팬더곰처럼 생긴 토토로. 토토로의 매력은 입을 잔뜩 벌리고 웃는 표정이다. 토토로는 관세음보살이 천 개의 손으로 중생을 보살피듯 이들 소녀를 보살핀다. 어떨 때는 꿈속에서, 어떨 때는 고양이 모양의 버스 친구와 함께 토토로는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것 같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번쯤 권해주고 싶은 영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수정보완본」완간 출시

드디어 「수정보완본」 전12권이 완간되었습니다. 본서(本書)를 애호하시고 선입금하신후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어른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 포교원을 여십니까?

■ 독살림을 계획하십니까?

■ 절 살림이 여의치 않습니까?

■ 오행을 미처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까?

※ 출생 연월일시를 물을 필요가 없고 만세력도 볼 필요가 없으며 그날 그시간만 보면 됩니다

여기, 쉽고 빠르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서(奇書)가 있습니다

- 이 책에서 밝혀진 귀신(작사鬼와 병鬼)과 산소탈과 빌미부정은 정확하기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 이 책에서 적시해 놓은 귀신해소법은 영험하기로 유명합니다.
- 매일 하루치를 꺼내보고 넣고하므로 세세영영 간편히 보게되어 있습니다.

- 이 책은 살림을 넉넉하게 해주는 보서입니다.
- 현재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 감히 말하건대 이책 이상의 편리하고 정확한 활인천역서는 없을 것입니다.
- 이 책은 귀하를 편안하게, 넉넉하게, 명성있게 해 줄것이 틀림없습니다.

■ 책값이 비싸지만 비싼만큼 더 큰 효과가 있게 된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사육임강의록」을 증보합니다. 전에 구입하신 분은 교환 신청하십시오. 무료 교환해 드립니다. - 효사 -

주문 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입금 계좌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신용카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卜問